



한수원, 민간 기업과 'Korea Nuclear Partners' 설립 원전 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사업처

후쿠시마 사고와 셰일가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483기의 원전이 건설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 세계 가동 원전의 운영 정비 시장 역시 계속운전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안전 설비 보강을 위한 신규 설비 공급 등 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 운영 원전 중 가동년수 25년 이상 원전은 331기로 전체의 76%에 달하며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 시장 규모는 호기당 3억불로 추정되는 등 향후 원자력 기자재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수출 역량 저조

이러한 시장 환경과 달리 국내 원전 산업계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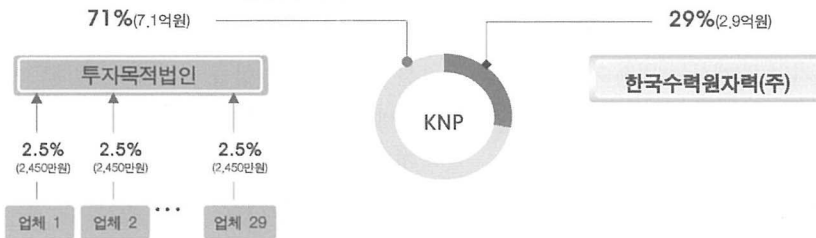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14년 KNA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기자재 제작업체의 수출 경험은 11.1%이다.

고리 1호기 건설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정책에 따른 기술 개발로 기술 자립도 100%를 달성한 수치와 비교해보면 국내 원전 산업계의 수출역량은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비교할 때 수출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일까? 이는 원전 기자재 산업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전 기자재는 전력 기자재와 달리 품질 요건과 진입 장벽이 높다. 발주자별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발주자별로 개별 품목에 대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현지 업체나 기존 공급망 중심으로 납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또한

【원전기자재 수출 법인 출자 구조】





KNP 설립 총회. KNP는 국내 원전 기자재업체를 대신하여 수출 사업과 수출 기반 조성을 수행한다.

국내 원전 기자재 생산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것도 수출 부진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9%, 투자 목적 법인 71%의 지분 출자를 하며, 앞으로 국내 원전산업계를 대신하여 기자재·검사·용역 서비스의 수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출 전담 법인 Korea Nuclear Partners 설립

수출 애로 해결, 해외 사업 다각화 추진

원전 산업계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수원은 민간 기업과 '14년 초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수출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해왔다.

KNP는 국내 원전 기자재업체를 대신하여 수출 사업과 수출 기반 조성을 수행한다. 수출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 해외 사업인 UAE BNPP 운영 정비 기자재, 검사 및 정비 용역을 수출을 추진하게 되며,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은 시험 인증, 품질 인증 및 기자재 공급자 등록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민간 대상 3차례 설명회 및 5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한수원과 민간이 협업하여 원전 산업 수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수립된 방안은 외부 기관(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간 우리의 원전 수출 전략이 플랜트 중심으로 원전 기자재·검사·용역 분야의 수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저하 및 경험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 개월의 과정을 걸쳐 한수원과 민간 기업은 수출법인 설립에 최종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과 원자력 관련 민간 기업 29개사는 원전 기자재, 용역 수출을 추진할 수출 전담 법인인 KNP, Korea Nuclear Partners를 11월 19일 설립했다.

KNP의 설립으로 개별 기업의 수출 역량 부족에 따른 수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플랜트 중심의 원전 수출에서 벗어난 해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인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한번에 만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자본금 10억원에 대해서 주주 협약에 따라 한수원